



주 제:	“ 파견 ”	“연중 제 29 주일 ”	2008 년 10 월 19 일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이사 2,1-5]	[로마 10,9-18]

얼마 전 이 세상의 가장 오지로 파견된 한 형제가 기억납니다. 이제야 막 사제로 서품된 형제입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풋풋한 젊은이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선교지에서 겪게 될 갖은 고초가 손에 잡힐 듯이 떠오릅니다. 물설고 낮 설은 이국땅, 풍토병, 지독한 더위, 입에 댈 수조차 없는 음식, 외로움, 무엇보다도 끝까지 괴롭히는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아깝습니다. 오랜 기간의 수도자 양성 끝에 이제야 ‘썩먹을 사람’ 한 사람 생겼는데, 한 번도 썩먹지 못하고 고스란히 넘기자니 허탈합니다. 그러나 ‘한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견되면 열 명의 성소자가 들어온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아깝지만 기꺼이 파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해외선교사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는 오늘 우리 교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 형제가 해외로, 그것도 가장 낙후된 오지로 파견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형제의 마음 안에 선교사로서의 꿈이 생겨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이역만리 머나먼 땅에서 ‘쌩고쌩’들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정된 기반을 기꺼이 포기하게 하며, 불확실한 미지의 생활로 투신하게 하며, 결국 목숨까지 바치게 하는 복음의 매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양승국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반주자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유럽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오셨습니다. 여행중에도 유명 성당을 순회하며 심신을 다지고 돌아오셔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 조경자 울리아나 자매님 10/5-11/9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연 하연 아네스 자매님, 일요일 아침시간 강의 관제로 2개월 가량 성가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지혜주시어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모친의 간병차 10월 말까지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aby Shower!!

서 병문 바오로와 박 상미 베로니카 신혼 부부의 첫 애기를 위한 baby shower 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꼭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언제: 2008 년 11 월 1 일(토) 12:00 시

어디서: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 댁: 650-380-2236

12650 Corte Madera Ln Los Altos Hills, CA 94022

알림: 매주 화답송은 음원과 악보를 소식지와 함께 첨부되어 있어오니 꼭 열어 보시고 음원을 들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연습실에서는 최소의 시간으로 맞춰보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당 웹에는 “I believe”와 “Advent Hymn”이 각 파트별로 올려져있으니 이용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공지 사항:

매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례에 도구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노래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결코 용이하지 않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남자 단원들이 적극 희생봉사하여, 집에서도 연습을 하여 더욱 숙달된 모습으로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꼭 숙지하시어, 잊지 말고 매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으니 꼭 해 보시고 오십시오. (금주는 늦었습니다.)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4. 위의 두가지 사항이 지켜지면 연습시간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5.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밤샘작업을 하시며 수고하여 주신 **최일해 다니엘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중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여 주십시오.

*** 복음 [마태 28,16-20]**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분 명상

♡ "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 "♡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향기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줍니다(로마 12,15),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앞길에 울가미를 놓거나 함정을 파놓는 사람
 이웃의 불행을 고소해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사람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이웃의 배고픔을 강요하는 사람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는 늘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이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